



남원시보건소, 혈관 건강 측정 민원실서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11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매일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보건소 방문간호사 7명이 시민들의 혈관 건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혈관 수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참여자 564명 중 고혈압·당뇨 질환 의심자 20명, 질환 진단을 받거나 예방을 위해 발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혈관 건강은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고 이를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뇌·심근경색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라이온들 숙원, 신축회관 첫걸음'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 회관 신축부지 매입완료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총재 서성진)는 전북 라이온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구회관 신축계획의 첫걸음으로 지난 대의원총회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회관신축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라이온스 전북지구 회관은 오래전부터 신축회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보류되다가 2023년 서성진 총재 체제로 들어서신 뒤 본격 착수됐다. 구상하는 신축 회관의 모습은 업무·사무공간과 함께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과 중규모 이상의 회의가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라이온들의 활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구 회관건립추진위원장(제29대총재 김천길)은 "신축 회관은 전북지구 라이온들의 오랜 열망을 알기에 라이온들에게 더 많은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건립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단계부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구 신축회관은 총 사업비 70억원(부지매입비 30억원 포함)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61번지 면적 761평(2512.2m)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14㎡(약 609평) 규모로 신축 회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내장산 우화정에 내장산 노래비 설치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우화정 앞에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에 제작해 저작권을 소유한 노래 '내장산'을 널리 알리고자 내장산 우화정 앞에 포토존을 조성했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비석 조형물 노래비가 아닌, 내장산과 잘 어울리는 '단풍'을 주 이미지로 한 노래비를 조성해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벤치형으로 설치된 노래비는 '정읍 내장산'이라는 글자를 크게 새겨 이곳이 내장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단풍잎 모양 한편에는 노래 내장산의 가사 등 정보를 기록했고 버튼을 누르면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읍'로 연결돼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장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단풍을 형상화해 노래비를 만들었다"며 "정읍과 내장산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복태 동일운수 회장,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동일운수 김복태 회장이 고향인 남원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1일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복태 회장은 운봉읍 비전마을 출신으로 인천에서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2020년 운봉 IC 축구장 건립에 1억원 후원, 운봉자활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운봉 자원봉사자의 집 신축, 운봉초등학교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등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선행으로 고향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김복태 회장은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앞으로 고향의 소식에 귀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간부공무원 워크숍...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다짐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의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섰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9~10일(1박2일) 전남 신안군에서 고창군청 간부공무원 62명이 참여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군은 휴식과 소통중심의 기존 워크숍에서 벗어나 올해 군정슬로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고창군과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한국의갯벌)과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 최우수관광마을(고창고인돌문화관광지마을 신안패물섬) 등을 공유하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특강을 통해 "빠른 자연환경을 가진 고창과 신안이 앞으로 서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주민 삶이 행복해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병식 초빙교수(서울시립대), 최국신 고문변호사(법무법인 광주로법), 임지선 대표(가치공간건설팀), 장은경 대표(ALL버튼스피치)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틀날



에는 신안 1004 뮤지엄 파크 벤치마킹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한 간부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과 공직의 가치를 공유, 한마음으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로 간부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 개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3월에서 11월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가족코칭은 다문화가정 이주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정 내 부모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무주군가족센터는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당 연 14시간 총 7회기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진행장소는 센터 및 무주군 일원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이주언어 어교실 직접학습 및 온라인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더 좋은 고창' 위한 주민 생태활동 추진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이양수 협의회장)는 11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위 유지를 기대하며, 생물 다양성을 위한 보전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은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14개 읍면 지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돌공원 일대 하천 정화 활동과 운곡습지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는 2014년 1월 발기, 9월 창립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고인돌공원, 운곡습지, 선운산 고창갯벌, 동림저수지)과 14개 읍면의 완충, 전이 지역의 습지, 하천, 숲, 농경지 등에서 환경정화활동, 서식지 보호 및 모니터링, 먹이 식물 식재, 유해 동물 퇴치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한편 2019년 5월 29일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계획) MAB국제조정위원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지난해 9월 지정 후 10년의 성과를 담아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위 유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7월 MAB국제조정위원회의 생물권보전지역 기준 충족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완산의용소방연합, 모악산 사찰 노후 소화기 교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최영광 송미숙)가 11일 중언동 소재 모악산 내 사찰에 급속파와 달성사를 찾아 노후 소화기 10대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화기 교체는 대부분 목조건물인 전통사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고, 특히 건조한 봄철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찰의 화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찰 관계자는 "유사시 꼭 필요한 소화기를 교체해 주신 최영광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찰 안전관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광 연합회장은 "전통사찰 주변이 산림지대인 만큼 봄철 산불예방과 등산객들의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운봉읍,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운봉읍은 어르신들(65세 이상)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중 연동, 소식마을 등 4개 경로당에서 총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 이해와 예방,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운동 치아 관리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또한 운봉읍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해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앞장서고 있다. 한 어르신은, "가까운 경로당에서 건강도 확인해 주고, 질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으니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자녀 언어발달 위한 부모교육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지난 7일 다문화가정 대상 '좋은 부모 북북(TALK TALK)'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좋은 부모 북북은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6회기로 3월7일부터 4월18일까지 영유아기 3회기, 학령기 3회기로 나눠 실시하며, 프로그램의 효과 증대를 위해 행복플러스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연계하여 진행된다. 영유아기 3회기는 언어발달 놀이지도 상호작용 코칭을 중점으로 하여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자녀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학령기 3회기는 자녀 문해력 향상 학습지도 코칭을 중심으로 올바른 자녀 훈육방법과 문제행동 대처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교육 이후 가정 방문 모니터링도 함께 하여 진행 상황 점검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7일 개강한 좋은 부모 북북은 영유아반으로 57명(10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14일 진행된 학령기반은 총 77명(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